대한치과위생학회지 : Vol. 8, No. 1, 2006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구강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 윤 화
강릉영동대학 치위생과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지휘 · 명령에 육체적 · 정신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건강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은 인종 · 종교 · 정치 · 경제 · 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7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1995년 이후 직장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시에 구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구강보건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1].

이는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실태조사 및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의지는 갖게 되었지만 성인 집단인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인 구강검진으로 구강건강을 예방 및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은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 많은 사업장에서 수년간 실시한 구강검진결과에 의해 구강건강관리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구강병 치료관리 및 직업병 관리에 효과를 거두려면 구강검진과 더불어 근로자 각 개인이 인지하는 구강건강 상태나 단순한 구강보건지식, 행태가 아닌 일상생활 및 업무관련 구강건강장애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2].

하지만 현재의 구강검진은 결과에 따른 치료가 바로 이루어지는 확률이 현저히 낮고 구강질환이 동통없이 발생되므로 다른 질병에 비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매스컴의 발달과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 예전보다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장시간이 걸리는 치과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인식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질환에 비해 구강건강이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보건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산업장 건강진단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건강 이상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조처, 적정 배치와 직장적응의 확인, 계속적인 건강상태의 관찰, 건강에 대한 영향 요인의 발견, 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의 발견, 근로자 건강의 유지 증진에 대한 기여, 사업장 보건관리업무의 적정도 평가, 산업보건교육 및 일반건강교육에 기여 등이 받아들여지고 있다[3]. 그에 따라 산업보건사업의 한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근로자 구강보건사업도 위의 사항과 동등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발달에 기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불만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에 따른 흡연과 음주, 불만족에서 오는 이직현상은 현재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 중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형태에 따른 여러 요인들이 구강지식과 구강건강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관련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더 나은 근무만족도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들의 현재 근무실태가 구강건강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무상태 특성을 파악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음주, 흡연 상태를 관찰하고 구강지식과 구강건강실천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2. 연구대상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충남 천안시, 아산시에 있는 2개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 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중 설문지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14명을 제외한 160명으로 하였다.

2.3. 연구방법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법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설문지 작성을 회피하는 근로자에게는 설문지 작성을 하지 않게 하였으며, 설문지 보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고연령층은 제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서술하였고 범주형 자료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치과방문과 스켈링유무, 취침전 잇솔질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해서는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 남자는 108명(67.5%), 여자는 52명(32.5%)이고 연령은 30세 이하가 86명(53.7%), 31세-39세 이하가 64명(40%), 40세 이상이 10명(6.3%)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전문대졸이 40명(25%), 대졸 이상이 120명(75%)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0)

항 목		N (%)
성별	남자	108 (67.5)
	여자	52 (32.5)
나이	30세 이하	86 (53.7)
	31세~39세	64 (40.0)
	40세 이상	10 (6.3)
학력	고졸, 전문대졸	40 (25.0)
	4년제 졸	120 (75.0)
월수입	200만원 이하	100 (62.5)
	200만원 이상	60 (37.5)
결혼유무	미혼	92 (57.5)
	기혼	68 (42.5)
자녀유무	있다	40 (25.0)
	없다	120 (75.0)
음주횟수	안마심	44 (27.5)
(1주 기준)	2회 이상 마심	116 (72.5)
흡연기간	비흡연	98 (61.3)
	10년 미만	36 (22.5)
	10년 이상	26 (16.3)

사람이 더 많았다.

월수입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만원 이하는 100명(62.5%), 200만원 이상은 60명(37.5%)이었다.

결혼유무는 미혼 92명(57.5%), 기혼 68명(42.5%)이었고, 이에 따른 자녀유무는 자녀가 없다 120명(75%), 자녀가 있다 40명(25%)이었다.

음주횟수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안 마심 44명(27.5%), 2회 이상 마심 116명(72.5%)으로 음주자가 더 많았고, 흡연기간은 비흡연 98명(61.3%), 10년 미만 36명(22.5%), 10년 이상 26명(16.3%)이었다.

3.2. 연구대상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특성

연구대상자의 근무실태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 중 이직경험이 있는 사람이 68명(42.5%), 이직경험이 없는 사람은 92명(57.5%)이었다. 근무경력은 1년 이하 22명(13.8%), 1년~5년 이하 84명(52.5%), 6년 이상 54명(33.8%)으로 근무경력은 1년~5년이 가장 많았다.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 이하 34명(21.3%), 8시간~12시간미만 80명(50%), 12시간 이상 46명(28.8%)이었다.

직업환경만족도는 만족 40명(25%), 보통 90명(56.3%), 불만족 30명(18.8%)으로 보통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직무만족도는 만족 56명(35%), 보통 88명(55%), 불만족 16명(10%)으로 직무만족도는 보통이라는 대답이 많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없거나 미흡하다 44명(27.5%), 보통 56명(35%), 많다 60명(37.5%)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특성 (N=80)

항 목		N (%)
이직경험	유	68 (42.5)
	무	92 (57.5)
근무경력	1년이하	22 (13.8)
	1~5년	84 (52.5)
	6~10년이상	54 (33.8)
하루근무시간	8시간이하	34 (21.3)
	8~12시간미만	80 (50.0)
	12시간이상	46 (28.8)
직업환경만족도	만족	40 (25.0)
	보통	90 (56.3)
	불만족	30 (18.8)
직무만족도	만족	56 (35.0)
	보통	88 (55.0)
	불만족	16 (10.0)
스트레스	없거나 미흡	44 (27.5)
	보통	56 (35.0)
	많다	60 (37.5)

3.3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상태와 지식도에 따른 특성

구강검진을 위한 치과방문은 방문안함 90명(55.0%), 방문함 70명(45.0%)이었다. 1년에 필요한 스켈링횟수에 따른 지식도의 응답은 안 받아도 된다 36명(22.5%), 1~2번 118명(73.8%), 3~4번 6명(3.8%)으로 1년에 필요한 스켈링 횟수는 1~2번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에 따라 1년에 실제로 받고 있는 스켈링 횟수는 안한다 108명(67.5%), 1~2번 52명(32.5%)으로 실제로 스켈링을 받고 있지 않는 근로자가 더 많았다.

또한 충치와 치주질환의 중요도를 보면 충치 24명(15.0%), 치주질환 136명(85.0%)으로 많은 사람이 치주질환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식후 잇솔질의 중요도를 보면 중요하다 156명(97.5%)이었지만 실제로 식후의 잇솔질의 실천유무에서는 한다가 130명(81.3%)이었다.

취침전 잇솔질의 중요성에는 중요하다 148명(92.5%)이었고, 중요하지 않다 12명(7.2%)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짐전 잇솔질의 실천유무는 한다 118명(73.8%)으로 실제 잇솔질 실행은 더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정보획득원은 치과전문인 28명(17.6%), 인터넷 56명(35.0%), 신문 6명(3.8%), 서적 2명(1.3%) 주위사람 68명(42.5%)이었다. 자신의 구강건강에 관한 생각은 안 좋다 54명(33.8%), 보통 86명(53.8%), 좋다 20명(12.5%)이었다(표 3).

3.4. 연구대상자의 근무환경과 치과방문 유무

이직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중 치과를 방문함이 40명(58.8%), 방문안함 28명(41.2%)이었고 이직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의 치과방문은 32명(34.8%), 방문안함 60명(65.2%)으로 이직경험이

표 3.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상태와 지식도 (N=80)

항 목		N (%)
구강검진을 위한 치과방문	방문안함	90 (55.0)
	방문함	70 (45.0)
1년에 필요한 스케일링 수	안받아도 됨	36 (22.5)
	1~2	118 (73.8)
	3~4	6 (3.8)
1년에 실제 받고 있는 스케일링 횟수	안함	108 (67.5)
	1~2번	52 (32.5)
충치와 치주질환 중 더 중요한 요소	충치	24 (15)
	치주질환	136 (85.0)
식후 잇솔질의 중요성	중요	156 (97.5)
	중요하지 않다	4 (2.5)
식후 실제 잇솔질 실천유무	한다	130 (81.3)
	안한다	30 (18.8)
취짐전 잇솔질의 중요성	중요	148 (92.5)
	중요하지 않다	12 (7.5)
취짐전 실제 잇솔질 실천유무	한다	118 (73.8)
	안한다	42 (26.3)
구강건강정보 획득원	치과전문인	28 (17.6)
	인터넷	56 (35.0)
	신문	6 (3.8)
	서적	2 (1.3)
	주위사람	68 (42.5)
자신의 구강건강에 상태에 관한 생각	안좋다	54 (33.8)
	보통	86 (53.8)
	좋다	20 (12.5)

있는 연구대상자가 치과방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경험에 따른 치과방문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스트레스는 없거나 미흡하다는 연구대상자의 치과방문은 28명(63.7%), 스트레스가 보통이라는 연구대상자의 치과방문은 28명(50.0%), 스트레스가 많다는 연구대상자의 치과방문은 16명(26.7%)으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치과방문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1일 근무시간과 작업환경만족도, 직무만족도에 따른 치과방문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스트레스 요인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3.5. 연구대상자의 근무환경과 스켈링의 유무

이직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중 스켈링을 한다가 34명(50.0%), 스켈링을 안한다가 34명(50.0%)이었으며 이직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는 스켈링을 한다가 18명(19.6), 스켈링을 안한다가 74명(80.4%)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하로 일하는 연구대상

표 4. 연구대상자의 근무환경과 치과방문유무 (N=80)

항 목		방문함		방문안함		p-value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직경험율	유	40	58.8	28	41.2	0.0326*
	무	32	34.8	60	65.2	
스트레스	없거나 미흡	28	63.7	16	36.4	
	보통	28	50.0	28	50.0	0.0242*
	많음	16	26.7	44	73.4	
1일 근무시간	8시간이하	18	52.9	16	47.1	
	8-12시간미만	36	45.0	44	55.0	0.6862
	12시간이상	18	39.1	28	60.9	
작업환경만족도	만족	16	40.0	24	60.0	
	보통	42	46.7	48	53.3	0.8740
	불만족	14	46.7	16	53.3	
직무만족도	만족	26	46.4	30	53.6	
	보통	42	47.7	46	52.3	0.4847
	불만족	4	25.0	12	75.0	

*p < .05 **p < .01 ***p < .001

자들 중 스켈링을 한다가 18명(52.9%), 스켈링을 안한다가 16명(47.1%), 8~12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연구대상자들 중 18명(22.5%)이 스켈링을 한다고 대답하였고, 62명(77.5%)이 스켈링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12시간이상 일하는 대상자들 중 스켈링을 한다가 16명(34.8%), 스켈링을 안한다가 30명(65.2%)으로 나타났다(표 5).

3.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환경과 식후 잇솔질 유무

연구대상자의 흡연정도를 보면 비흡연자의 잇솔질 실천은 86명(87.7%), 흡연자의 잇솔질 실천은 44명(71%)으로 비흡연자의 식후 잇솔질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의 영향보다는 음주의 영향이 더 컸다.

1일 근무시간에서는 8~12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의 식후 잇솔질 실천은 56명(70.0%)이었고, 8시간이하와 12시간이상의 식후 잇솔질 실천은 각각 32명(94.1%) 및 42명(91.3%)이었는데 1일 근무시간은 식후 잇솔질 실천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3.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환경과 취침전 잇솔질 유무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는 70명(64.8%)이 취침전 잇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48명(92.3%)이 취침전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은 취침전 잇솔질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결혼유무를 보면 미혼남성의 60명(65.2%)이 취침전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2명(34.8%)이 취침전 잇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은 58명(85.3%)이 취침전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14.7%)이 취침전 잇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유무도 취침전 잇솔질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표 5.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스켈링의 유무 (N=80)

항 목		한다		안한다		p-value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직경험율	유	34	50.0	34	50.0	0.0041***
	무	18	19.6	74	80.4	
스트레스	없거나 미흡	18	40.9	26	59.1	
	보통	20	35.7	36	64.3	0.3697
	많음	14	23.3	46	76.7	
1일 근무시간	8시간이하	18	52.9	16	47.1	
	8-12시간미만	18	22.5	62	77.5	0.0775
	12시간이상	16	34.8	30	65.2	
작업환경만족도	만족	10	25.0	30	75.0	
	보통	28	31.1	62	68.9	0.3820
	불만족	14	46.7	16	53.3	
직무만족도	만족	18	32.1	38	67.9	
	보통	28	31.8	60	68.2	0.9502
	불만족	6	37.5	10	62.5	

*p < .05 **p < .01 ***p < .001

보였다(p < 0.05)(표 7).

3.8. 연구대상자의 치과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치과방문시 성별을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6.46배 높은 비율을 보이며 여성의 치과방문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고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직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3.73배 더 높아 이직경험이 있는 사람이 치과방문을 더 하는 것으로 보였고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8).

3.9. 스켈링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스켈링 유무에는 이직경험이 있는 사람이 8.84배 더 높게 스켈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일 근무시간에서는 8시간이하로 일하는 사람보다 그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차비가 1보다 적게 나타나 8시간이하로 일하는 사람이 더 스켈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

3.10. 취침전 잇솔질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취침전 잇솔질은 미혼보다 기혼이 6.096배 더 높게 나타나 기혼이 취침전 잇솔질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0).

4. 고 찰

1977년 이래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참

표 6.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환경과 식후 잇솔질 유무 (N=80)

항 목		한다		안한다		p-value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84	77.8	24	22.2	0.2515
	여자	46	88.5	6	11.5	
결혼유무	미혼	80	87.0	12	13.0	0.1282
	기혼	50	73.5	18	26.5	
흡연	비흡연	86	87.7	12	12.2	0.0609
	흡연	44	71.0	18	29.0	
음주	비음주	34	77.3	10	22.7	0.5746
	음주	96	82.8	20	17.2	
이직경험율	유	56	82.4	18	19.6	0.8280
	무	74	80.4	12	17.7	
스트레스	없거나 미흡	36	81.8	8	18.2	
	보통	44	78.6	12	21.4	0.8949
	많음	50	83.3	10	16.7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	32	94.1	2	5.9	
	8-12시간 미만	56	70.0	24	30.0	0.0351*
	12시간 이상	42	91.3	4	8.7	
작업환경만족도	만족	34	85.0	6	15.0	
	보통	72	80.0	18	20.0	0.8842
	불만족	24	80.0	6	20.0	
직무만족도	만족	46	82.1	10	17.9	
	보통	70	79.6	18	20.5	0.8591
	불만족	14	87.5	2	12.5	

*p < .05 **p < .01 ***p < .001

가 각국의 협력을 얻어 실효성 있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1986년에는 세계보건제의 테마로 “건강한 생활은 승리를”을 내걸고, 개개인이 지역사회와 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5].

그만큼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 사회발전으로 인해 건강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있다. 사회 · 경제적으로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마련된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서비스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의 일부인 구강건강에 대한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그에 따른 구강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그에 따른 여러 요소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서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에 개선방안과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표 7.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환경과 취침전 잇솔질 유무 (N=80)

항 목		한다		안한다		p-value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70	64.8	38	35.2	0.0089***
	여자	48	92.3	4	7.7	
결혼유무	미혼	60	65.2	32	34.8	0.0436*
	기혼	58	85.3	10	14.7	
흡연	비흡연	78	79.6	20	20.4	0.1354
	흡연	40	64.5	22	35.5	
음주	비음주	38	86.4	6	13.6	0.1143
	음주	80	69.0	36	31.0	
이직경험율	유	54	79.4	28	30.4	0.3224
	무	64	69.6	14	20.6	
스트레스	없거나 미흡	40	71.4	16	28.6	
	보통	68	77.3	20	22.7	0.6431
	많음	10	62.5	6	37.5	
1일 근무시간	8시간이하	32	94.1	2	5.9	
	8-12시간미만	56	70.0	24	30.0	0.0908
	12시간이상	30	65.2	16	34.8	
작업환경만족도	만족	30	75.0	10	25.0	
	보통	70	8.0	18	20.0	0.3949
	불만족	18	60.0	20	22.2	
직무만족도	만족	40	71.4	16	28.6	
	보통	68	77.3	20	22.7	0.6431
	불만족	10	62.5	6	37.5	

*p < .05 **p < .01 ***p < .001

표 8. 연구대상자의 치과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비차비	95%신뢰구간
치과방문	성별 (0=남자, 1=여자)	6.46	1.006 41.459
	이직경험 (0=없다, 1=있다)	3.73	1.184 11.751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상태와 지식도를 보면 실제로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 치주질환의 중요성을 더 크게 생각했으며 식후와 취침 전의 잇솔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치과전문인이 아니어도 인터넷을 통한 지식습득도 많았으나, 그릇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근로자의 근무환경에서 이직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치과방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적 · 심리

표 9. 스켈링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비차비	95%신뢰구간
스켈링 유무	이직경험 (0=없다, 1=있다)	8.84	2.167 36.061
	1일 근무시간 (8시간이하=0, 이상=1)	0.060	0.006 0.626

표 10. 취침전 잇솔질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비차비	95%신뢰구간
취침전 잇솔질 유무	결혼유무 (미혼=0, 기혼=1)	6.096	1.079 34.446

적 여유를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대상자들이 치과방문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미흡하게만 느낀다는 연구대상자들과 보통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대상자들의 치과방문은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고 스트레스는 치과방문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신적인 안정이 자신의 구강건강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스켈링의 유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치과방문 유무에서와 같이 이직경험이 스켈링의 유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직경험이 있는 집단이 치과방문을 많이 하는 것과 동시에 스켈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스켈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적 · 심리적 여유를 이용한 치과방문시 치과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구강검진을 통해 스켈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동시에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다.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건강에 유익한 상황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주고 동기 부여를 시키는 수단이다[6]. 따라서 구강보건교육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강검진시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따른 식후 잇솔질 유무를 보면 음주나 흡연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음주보다는 흡연정도가 근사치에 가까웠다. 본 연구자는 근무시 받는 스트레스와 흡연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담배를 피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피우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CDC(Center of Disease Control)[7]의 보고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90% 이상의 흡연가들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흡연은 중독성이며 따라서 담배를 끊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흡연 이유를 긴장해소, 정신집중,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꼽고 있다. 흡연 그 자체뿐만 아니라 흡연과 관련된 행동

을 통해 대화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5]. 이와 같이 흡연과 근로자들과는 연관성이 많지만 흡연정도가 식후 잇솔질 유무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연구대상자들보다 그 이상으로 일하는 연구대상자들이 식후 잇솔질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인 혼자의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단이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후 여유시간을 같이 보냄으로써 집단잇솔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현재의 사업장에서는 석식까지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따른 취침전 잇솔질 유무를 보면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침전 잇솔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침전 잇솔질을 하지 않는다는 남성이 35.2%나 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침전 흡연이나 음주의 영향이 취침전 잇솔질의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신의 청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 여성이라는 대중적인 인식을 참고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혼유무를 보면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취침전 잇솔질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로 배우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남성의 취침전 잇솔질 비실천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배우자는 거의 없다고 본다. 취침전 잇솔질의 유무에는 근무환경보다는 일반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로지스틱 분석 결과에서는 치과방문시 성별이 여성인 경우 치과방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 이직경험에서는 이직경험이 있는 사람이 치과방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경험은 치과방문의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스켈링 유무에서는 치과방문과 마찬가지로 이직경험이 있는 사람이 스켈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침전 잇솔질 유무에서는 기혼자가 더 취침전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고 여러 사업장에서의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근무형태와 작업환경에 관해서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성별과 이직경험, 스트레스, 근무시간, 결혼유무가 근로자의 구강건강과 실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구강건강과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많은 구강보건교육기관과 의료기관, 국민건강증진사업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단기간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대대적인 사업으로 활성화, 의무화시켜서 쾌적한 상태에서의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5. 결 론

연구대상은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충남 천안시, 아산시에 있는 2개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 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으로 조사하였으나, 이중 설문지를 불성실하게 답변한 14명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160명이었

다.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서술하였고, 범주형 자료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치과방문과 스켈링 유무, 취짐전 잇솔질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해서는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67.5%, 여자 32.5%이었고 나이는 40세 이하가 93.7%로 젊은 층에 편중되었다.
2. 근로자의 구강위생상태와 지식도에서는 스켈링 횟수와 치주질환의 중요성, 잇솔질의 중요성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3. 치과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이직경험,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p < 0.05$) 치과방문 수가 더 많았고, 이직경험을 더 많이 할수록($p < 0.05$) 치과방문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치과방문자가 더 많게 나타났다($p < 0.05$).
4. 스켈링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직경험과 1일 근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직경험이 있을수록($p < 0.05$) 스켈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일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이 길지 않을수록($p < 0.05$) 스켈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침전 잇솔질 유무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결혼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취침전 잇솔질을 더 하는 것으로($p < 0.05$)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근로자들이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강건강검진이 필요하고, 구강검진결과에 따른 구강건강을 위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제공되어야 하며,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혜진. 산업근로자의 구강건강실태조사. 한국구강증진학회학술대회 초록집. 2000.
2. 김은숙, 김영복. 근로자들의 일상생활 구강건강인지도구 요인분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1;1(1):53-61.
3. 장덕희, 황보영, 리갑수 외 4인. 모 통신관련 사업장 연작업자들의 건강수준 평가. 순천향산업의학지 1997;3(1):2-12.
4. 김효숙. 치석 제거술시 치과적 불안 및 치통에 대한 음악효과. 순천향산업의학지 1999;6(1):61-74.
5. 김남송, 이부식, 김대경 공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생활보건학. 계축문화사. 2000:228-231.
6. 전국대학보건관리학교육협의회 공저. 보건학원론. 계축문화사. 1999:369-372
7. Center for Disease Control: Reduc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2 years of Progress. Atlanta, G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ation DHHS(CDS) 89-841.

ABSTRACT

A Study the effects of the working condition of most of workers in Korea on their mouth

Yun-Hwa Choi

Dept. of Dental Hygiene, GangNeung YeongDong Colleg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working condition of most of workers in Korea on their mouth.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 87 office workers who work in 2 offices located in CheonAn and ASan City, Chungnam Province from February to May 2005 and they are asked to fill up the questionnaire. Among the respondents, 7 are excluded because their questionnaires are not faithfully written; therefore, the final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 80 persons. The collected data are inputted and analyzed using SAS program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re described as real number and percentage. Categorical data are examined using Chi-Square test. Logistic analysis is used in order to examine the variables that affect respondents' visit of dental clinics, the presence of scaling and brushing the teeth before going to b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in the following.

1. Among the respondents, male respon! dents are 67.5% and female counterparts are 32.5% and 93.7% of them are less than 40 who are relatively young.
2. As a result of logistic analysis,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visit of dental clinics are gender, experience of changing one' s position, presence of stress significantly.
3. The results show that the female respondents (p=0.0492) and those who have the experience of changing their jobs (p=0.0246) are more likely to visit the dental clinics.
4.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presence of scaling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variables such as the experience of changing jobs and working hours a day. The more they have the experience of changing their jobs (p=0.0024) and the less they have working hours (less than 8 hours a day) (p=0.0187), the more they do scaling. One of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presence of brushing the teeth before going to bed is the marital status and married people do brush teeth before going to bed more than unmarried people (p=0.0408).